

# 產學協同의 主導的 役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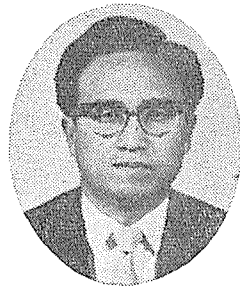
資源難 解決에 對備 分子設計의 必要性 擡頭

— 1975年度 夏季세미나를 마치고 —

우리 纖維工學會가 創立以來 年中 行事의 하나로 學術發表를 하여 우리 나라의 纖維工學振興에 寄與한 點과 그것이 產業界에 준 影響이 크긴 작건 陰으로 陽으로 적지 않은 結實을 맺었던 點에 對해서는 아무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學會事業은 그것만으로 滿足할 수는 決코 없다. 產學協同의 主導的 役割을 하고 產業界에 있는 人士에게는 工夫하고 研究하는 氣風을 또 學界에 있는 人士에게는 저간의 事情과 實務에서의 隘路點을 듣고 배우는 機會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業界內에서도 業種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자 하는 共同的 廣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밑에 1973年度에 全北 內藏山에서 第1回 韓國纖維工學會夏季세미나를 開催한후 올여름에는 3회째의 夏季세미나를 가졌다. 아직 우리 學會가 가졌던 세미나의 歷史는 月淺하지만 其間의 經過로 보아 우리의 學會活動과 產學協同의 기틀을 잡는 底力을 充分히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自負하고자 한다.

특히 今年의 세미나는 空氣맑고 山水좋은, 그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名寺刹이 있는 俗離山觀光호텔에서 8月8일부터 8月10일까지 2泊3日間 열띤 討論과 진지한 發表가 있었고 많은 參加者들이 제 나름대로 한아름의 收穫을 얻었음은 세미나를 推進한 執行部의 立場에서 흐뭇한 感을 갖게 했다.

더우기 學會에서는 1975年度 事業의 한가지로 外國人 學者 招請이 있었는데 招請對象으로 日



纖維工學會  
會長 金 魯 洙

本東京工業大學 有機材料工學科의 石川欣造教授와 高分子工學科의 河合 徹教授를 選定하여 우리의 세미나에 參加토록하여 特別講演을 갖도록 한것은 特記할 만한 事實이었다. 同 講演會에서 石川教授는 縫製技術의 將來를 豫測할 수 있는 展望을 說明하였는데 우리나라의 縫製技術者가 가져야 할 비전과 經營者가 꼭 成取하고 將次 우리나라의 經濟가 겪을 求人難에 對備할 비전을 提示해 주는 좋은 講演이었다. 또한 河合教授는 資源難에 直面한 現時點에서 부유한 나라에서의 所謂 消費는 美德이라는 概念은 그릇된 것이고 資源은 限定된 것이며 그 때문에 知識集約的인 產業을 바탕으로 해서 不足한 資源難解決에 對備해야 한다는 假定下에 分子設計의 必要性이 擡頭되고, 그러므로 try and error 방식이 아닌 演繹法的인 新製品 開發과 生產方式 開發이 절실히 要求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끝으로 그러한 研究의 結果中의 하나가 오늘날 새로이 開發되고 있는 液晶紡糸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여 講演했으며 특히 大邱嶺南 大學에서 가졌

던 高分子의 Chain folding model에 關한 說明은 河合教授가 아니고서는 들을수 없는 훌륭한 內容이었다. 그것은 그가 英國의 Keller 教授와 함께 Kawai-Keller Model을 提示해서 그것이 世界的으로 認定되었기 때문이며 이제까지 文獻上으로 읽어왔던 Shishi-Kabab의 構造를 우리 머리에 산뜻하게 들어오도록 說明해준 點은 참으로 興味로 왔다.

今般의 夏季세미나의 主題인 縫製工業의 科學的檢討는 主題發表와 질의응답으로 區分되어 進行되었는데 세미나를 主宰한 執行部로서는 보다 질의응답이 熱띠게 進行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그 理由로 세미나의 目的中的 하나가 業種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今회의 세미나에서 主題를 縫製工業으로 定한 理由中的 하나는 縫製 原資材 maker들과 縫製業者間의 不滿을 相互討論하고 그것을 學界에서 研究하고 배우며 問題點을 찾아내어 將次的 研究指標로 삼고 이렇게 함으로써 產學協同의 기틀이 굳어지고 우리나라의 縫製技術을 빠른 時日內에 보다 向上된 水準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이것이 結實되어 學會活動의 至上目標인 纖維產業發展에 貢獻이 이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今般의 세미나의 질의응답에서는 縫製業者나 原資材 maker 이거나 積極的인 參與가 적었기 때문에 期待했던 效果는 적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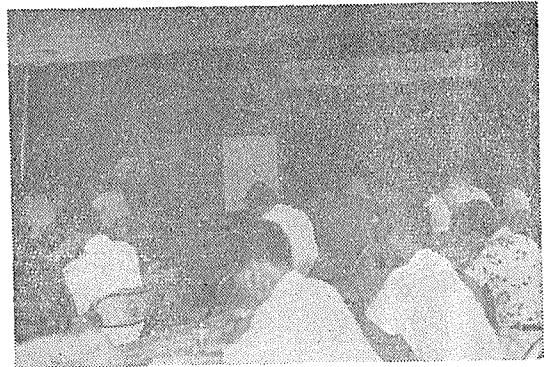


사진 : 섬유공학회 하계세미나 광경

다고 反省할 수 밖에 없다. 其 理由는 이들 關聯業界에서 參加할 參席者들이 그와같은 內容의 討論을 할 수있는 位置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졌다. 그러므로 以後의 세미나에서는 세미나의 目的과 主題에 따라서 業種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을 充分히 進行시킬 수 있도록 參席者相互間의 配慰가 있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지난 몇번의 세미나推進을 맡았던 經驗으로 보아 年次세미나는 一年間의 充分한 研究 끝에 主題의 選定, 參加者의 動員 및 演士의 選定 등 세미나만을 專擔하는 年次세미나 執行責任자가 있어야 年中計劃으로 進行을 擔當하는 것이 보다 알찬 內容을 가질 수 있는 方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1975年度 夏季세미나를 마친 所感으로 삼는다.

☆거리마다 안보다짐

집집마다 방위성금☆